

캐나다(퀘벡) 물리치료협회에서 평가한 대한물리치료협회 정회원의 성적평가

서울대학교병원 물리치료실
김 동 환

Evaluation for a Fellow of the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Executed by Canadian(Quebec) Physiotherapy Association

Kim, Dong Hwan, RPT

Dept. of Physical Therap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차 례

- I. 서 론
- II. 평가과정
- III. 제출서류
- IV. 평가결과
 - 1. 물리치료기본 및 전공교과목 평가
 - 2. 임상평가과정
- 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1900년대 초의 물리치료는 소아마비 환자와 세계 1차, 2차대전으로 인한 부상병의 치료를 위한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1945년 서구식 물리치료가 미국군인 물리치료사인 Geraldine Lindberg (APTA회원)에 의해 소개된 이래 민간인으로서 미국인 선교사인 물리치료사 Thelma

Maw(APTA회원)가 1949년 세브란스병원에 물리요법과를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에 물리치료학교가 1963년에 처음 생긴 이래 현재 3년제 물리치료학과 13개 학교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1개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졸업생들이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현재 서구의 물리치료는 1970년과 1980년을 기해 엄청난 발전과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 또한 작년 미국 연수과정에서 미국 물리치료사들의 정확한 진단능력 및 평가와 치료방법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물리치료 전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리치료의 이론과 치료법 그리고 연구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인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의 이론과 치료실제를 익히고자 캐나다 물리치료협회의 "외국에서 교육 받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지침"에 따라 성적을 평가해 보았다.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지침에 따른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로서의 해외진출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물리치료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던 한다.

II. 평가과정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하면서 최신의 과학적인 물리치료 이론과 치료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몬트리얼을 택했다. 퀘벡주의 몬트리얼을 택한 이유는 영어권의 명문 물리치료학교인 McGill 대학이 있고 연고자가 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평가 절차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의 “외국에서 교육받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지침”에 따랐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국이나 호주·남아프리카·유럽 등에서 물리치료교육을 받은 자나, 대부분의 영연방국가의 물리치료협회회원은 필기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교육을 받은 자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정회원은 성적평가를 거쳐서 캐나다 물리치료면허 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퀘벡 물리치료협회에 지원서와 제출서류를 보내어 평가를 받았다. 평가 수수료는 100달러였고 모든 서류는 영문이나 불문으로 제출되었다.

III. 제출서류

- 1) 지원서(캐나다 퀘벡 물리치료협회 양식)
 - 2) 물리치료사 면허증(공증)
 - 3) 중·고교 졸업증명서(공증)
 - 4) 물리치료학교 졸업증명서
 - 5) 대한물리치료사 협회회원증
 - 6) 수습증명서
 - 7) 경력증명서
 - 8) 재직 증명서
 - 9) 성적 증명서
 - 10) 각 과목 교과 내용(물리치료 전공과목)
 - 11)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or post-graduate education), 혹은 임상전문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 12) 사 진
 - 13) 수수료 100 \$ (1991년 기준)
- 지원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교육내용을 중등교

육과 물리치료학교교육, 임상전문교육, 임상경력 등으로 나뉘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각 과목 교과 내용은 교양과목인 국사, 국민윤리, 교련, 체육, 영어, 국어를 제외한 물리치료전공 30개 과목에 대해 각 과목마다 교과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과목명, 학점, 시간, 교수명, 학위, 협회원 유무, 교과목적, 학습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각 교과목적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운 후에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학습 내용란은 배운 내용을 상세히 적도록 요구했다.

서신이나 서류가 왕래하면서 각 과목 교과 내용을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었다.

IV. 평가결과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협회의 지침에 따른 주변허가 있어야 하며 퀘벡 물리치료협회에서 평가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는 대학에서의 교과 과목 이수와 둘째는 임상에서의 물리치료 실제의 평가로 나누어진다.

저자에게 요구한 학점과 임상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치료 기본 및 전공교과목 평가

요구된 물리치료 교과과목	학점
신경해부학	3
신경생리학	3
운동생리학	3
심리학(psychology)	6
정신의학(psychiatry)	2
물리치료학 연구 방법론	3
통계학	3
물리치료행정	2
생체역학	3
정상발달연구학(유아에서 노년까지)	2
말초 및 중추신경계 물리치료평가 및 치료	3
심·혈관계 및 호흡계 환자의 평가 및 치료	2
노인의학 물리치료	2
심·혈관계 의학	1
호흡계 의학	1
전공 선택	12
계	51

입상실습이 5학점 더 있어서 최초에는 모두 56학점이 요구되었으나 91년 1월의 정형물리치료 Cyriax코스(Woodman, RPT, MS)와 동년 4월의 NDT/Bobath 성인 편마비 3주 코스(Katsumasu Kii, RPT) 그리고 미국 켄터키컬주의 Physical Therapy & Sports Medicine Associates에서 정형물리치료와 스포츠 물리치료 연수 받은 것을 인정하여 입상실습(internship) 5학점은 면제되고 총 51학점이 요구되었다.

2. 임상 평가과정

캐나다 물리치료학교에서 위의 51학점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은 임상평가를 받아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임상견학 : 5일

② 임상에서의 평가 : 하루 8시간씩 4개월.

협회에서 지정하는 감독 물리치료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임상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점수에 따라 다음의 임상 수련과정이 좌우된다.

③ 임상 수련

이상과 같이 평가는 물리치료 전공 교과과정과 임상 평가과정으로 나뉘어지며 5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캐나다협회가 4개의 대학을 추천하였는데 그 중 몬트리올에 있는 영어권의 McGill대학 물리치료학과에 협회의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한 결과 special student로 92년에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51학점은 물리치료학교에서 최소 2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다. McGill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51학점을 취득하여도 단지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물리치료학 정규학위는 줄 수 없다는 학교측의 통보를 받았다. 정규 물리치료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에는 13개 대학에 4년제 이상의 물리치료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1986년에는 427명이 졸업을 했다. 캐나다 물리치료학교는

입학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외부지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도 있고 Western Ontario대학은 1991년 64명 입학정원에 510명이 지원하였다. 캐나다 물리치료협회에 따르면 1992년 캐나다 13개 대학 물리치료학과와 최대 모집인원은 668명이며, 물리치료사가 부족하여 외국에서 교육 받은 물리치료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11000명의 물리치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1세기까지 8000명의 물리치료사가 더 필요하다.

V. 결 론

원인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확한 진단에 가장 적합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급히 굴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21세기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의료분야에서 중요하다. 단적인 예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물리치료사 인력의 검토와 물리치료교육 프로그램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으로는 미국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위한 양적인 평가에서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점이 대부분 인정 받지만, 질적인 평가를 하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의 '지침'에 따른 퀘백 물리치료협회의 평가에서는 너무나 낮게 평가되었다. 캐나다 McGill대학 및 호주의 Newcastle대학에서도 국내 취득 학점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물리치료사는 지구촌이라 불리는 국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물리치료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의 상황에서 물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치료과정 그리고 연구가 우리보다 과학적으로 앞선 나라 중의 하나인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의 이론과 실재를 익히고자 캐나다 물리치료 협회의 "외국에서 교육받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지침"에 따라 성적을 평가해 보았다. 세계물리치료연맹(World Confederation of

Physical Therapy)의 같은 회원국으로서 대한 물리치료협회의 정회원에 대한 자질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우리와 선진국과의 물리치료의 gap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치료의 의미가 나라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의 물리치료교육이 물리치료사에 의한, 물리치료사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물리치료교육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과의 학문의 gap을 좁히기 위해 대한물리치료협회와 국가차원의 방향 정립과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교 이론교육과 병원의 임상교육과의 상호협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캐나다 Alberta대학 Piper박사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물리치료사는 “real physiotherapist”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전문인은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PT는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의 머릿글자이자 물리치료전문가(Professional Therapis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는 원하고 있다. 아니 요구하고 있다. 더욱 완전하고 더욱 질 높은 물리치료의 제공을!

감사의 말씀 : 영문·불문 서류 번역 및 현지에서 캐나다 PT협회와 McGill대학의 수속과정에 도움을 주신 캐나다 퀘벡정부자문위원이자

몬트리얼 퀘벡대학교수인 정희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이강월 : 한국 물리요법의 발전사. 우석의대 잡지. 1권 1호, 1970.
2.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 : Admission requirements for Physiotherapy education programs in Canada, 1991.
3.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 : Important notice for CPA registration examination candidates, 1991.
4. Hislop HJ : Tenth Mary McMillan Lecture. The not-so-impossible dream. Physical Therapy 55(10) 1969~1980, 1975.
5. Lee M. : Letter from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5 April, 1992.
6. Magee D : So, where do we go from here? Enid Graham memorial lecture 1991. PhysiotherapyCanada 43 : (3) 9~16, 1991.
7. Pasin LA : Letter from Corpoation professionnelle des Physiotheraputes du Quebec, 1991.
8. PiperMC : Physiotherapy and research : Future Visions Physiotherapy Canada 43 : 2, 1991.